

시내 산을 기억하라

성경말씀: 신4:9-24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구원 받은 자들의 성화 과정, 대부분의 백성이 실패하였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누리기에는 성숙하지 않았다.

자유와 성숙은 서로 다르다. 자유가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백성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 광야의 이스라엘

예수님은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사랑침례교회는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곳이다.

그런데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후에 성숙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신자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받은 이스라엘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들은 마치 유모가 필요한 아이들 같았으므로 율법이 필요하였다. 이 율법은 물론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신자든 불신자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과거 40년을 회상하며 기록한 책이다. ‘둘째 율법; 첫 세대는 성숙에 이르지 못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다 죽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둘째 세대에게 시내 산을 기억하라고 권고한다.

우리는 어느 면에서 둘째 세대,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은 세대가 있다(개역성경, 장로교 율법주의, 교회 전통, 샤머니즘, 기복 신앙, 여러 가지 교리의 바람에 휩쓸려 다님, 결국 WCC까지 유치함).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주어졌다. 율법주의, 교단 신학, 전통에 매일 필요가 없다. 자유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 자유를 성숙의 기회로 삼지 못하면 광야의 첫 세대처럼 망한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선 제물포로 불리던 인천에 도착하여 복음을 선포하였다. 1세대

그때로부터 12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역시 인천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든 2세대로 살고 있다. 이제는 자유에서 성숙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시내 산을 기억해야 한다(9). <시내 산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10-12)

백성을 모으고 내 말들을 듣게 하여 평생 동안 나를 두려워하게 하라(10).

출19: 탈출 뒤 셋째 달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진을 치(1-2)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심(4-6).

너희는 나의 기적을 보았다(4). 너희 특별 보물이 될 것이다(5).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된다(6).

백성의 대답: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8). 모세가 주님께 고함(8-9).

백성이 옷을 빨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 셋째 날에 내가 시내 산 위로 내려오리라(10-11).

절대로 산에 오르거나 경계에 닿지 말라. 여기는 자는 죽을 것이다(12).

백성이 정결하게 한 뒤 드디어 셋째 날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나므로 온 백성이 떨(16).

백성은 산기슭에 섰는데 시내 산이 연기로 자욱하고 온 산이 진동함.

이 무서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며 그가 시내 산으로 가서 십계명을 받음

히12:21, 모세의 고백,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A.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점이다.

마10:28,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성숙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내 산을 기억해야 한다.

B. 사도 바울의 권고(히12:25-29)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하던 모세를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1세대가 광야에

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진노를 피하겠느냐?(25).
구원받지 못한 자들: 회개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 신뢰해야 한다.
구원받는 자들: 역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징계의 심판이 있다.
재림의 심판(26-27). 그때에는 땅만 흔들렸으나 앞으로 한 번 재림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학2:6).

그 이유: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 있게 하려고 만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엔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피라미드, 인천대교 등 무엇이든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렘45:4-5). 그래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다스릴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다.

C. 이런 사람은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28)
이 은혜를 속에 간직할 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1. 말씀을 읽고 자신을 돌이키며 늘 부족함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2. 공예배를 중히 여겨야 한다.
3. 열심을 내서 성도들을 만나고 섬겨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4. 헌금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거에 종교에 매였을 때에도 10분이 1, 2를 했다. 이제는 자유인으로 자유인답게 성숙을 위해 해야 한다. 십일조 강요 안 함. 헌금 시간 없음. 이런 것을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첫째와 둘째 딸에게 주문한 것: 적어도 10분의 일을 드러라.
5. 복장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6. 교회 운영 등에서도 질서 있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D.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다(29).

불신자도 지옥에서 떨히시고 신자도 징계하시며 더욱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죽이기까지 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16-24)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잡신처럼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다.

시내 산에서 그분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15).

그러므로 어떤 형상을 세워 그분으로 대치하고 섬기지 말라(16-18).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아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이다(골3:5).

탐욕(Covetousness): 자기 것 외의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것, 극도로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만다. 돈, 교육, 명예, 자랑

그래서 탐욕은 지극히 엄중한 죄로 분류된다(엡5:3; 딤후6:9-10). 십계명의 10째 명령

마귀의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아담과 이브의 죄: 신들처럼 되어 자기들의 영역을 벗어나려 하는 것

교회나 사회에서 내게 주어지지 않은 위치나 자리를 탐하는 것, 다툼이 생긴다.

특히 교회는 이런 모임이 아니다. 교회의 리더십 자리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다.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단일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리더십이 생긴다.

탐욕으로 구하면 오래가지 않아 그 사람과 교회에 불행을 가져온다.

그래서 큰일들을 구하지 말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라. 탐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어지는 일, 보는 일 찾아서 섬기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된다.

결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2세대이다. 1세대의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 양육을 받지 못했다. 모세의 경고: 시내 산을 기억하라. 두려우신 하나님(공예배), 탐욕을 버려라.